



4면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책임자라"

# 전주매일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윤 2월 7일)

제323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북, 그린바이오 거점으로 '전진'

###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

도, 농식품부 등과 협약  
미생물·종자 등 거점 선점  
김관영 도지사, "스마트  
그린바이오산업 허브  
경쟁력 갖추도록 육성"

전북도가 농생명산업의 수도로서 농업융합식품부(이하 농식품부), 7개 시·도와 함께 명실상부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우뚝 서기 위한 행보를 내다갔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27일, 농식품부가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개최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에 참석해 농식품부, 7개 시·도와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발족식에는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5개 시·도(경북, 대전, 충북, 경남, 제주) 부단체장, 그린바이오 거점기관 및 전문가 C제일제당 등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정북도를 비롯한 각 기관은 발전 협의회 구성 등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농업과 그린바이오 산업의 연계 강화 및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27일 농식품부 주최로 강원도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열린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에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경북·대전·충북·경남·제주 부단체장, 그린바이오 거점기관 및 전문가, C제일제당 등 참석자들이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는 전라북도를 비롯해 관계 부처 및 기관, 기업·단체 등 다양한 민·관 관계자가 참여해 △그린바이오 산업 규제 효율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계, △생명공학기술 적용 농식품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민·관 합동 연구, △기업 간 네트워크, △그린바이오 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민·관 협업을 통해 그린바이오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 참여한 기관 중 종자산업진흥센터(김제), 농축산용미

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정읍), 발효미생물산업화진흥원(순창),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익산) 등 그린바이오 거점기관 5곳 중 4곳이나 전북에 위치하고, 정읍에 소재한 (주)에코비즈넷이 혁신 우수사례(미생물 사료첨가제 수출 모델)로도 소개돼 농생명산업 메카로서 전북의 위상을 높였다.

이를 통해 전북도는 그동안 관련 생태계 조성에 힘써온 김제(김제), 동물용의약품(익산), 미생물(정읍, 순창), 식품소재(익산) 등 기관이 그린바이오 주요 분야에서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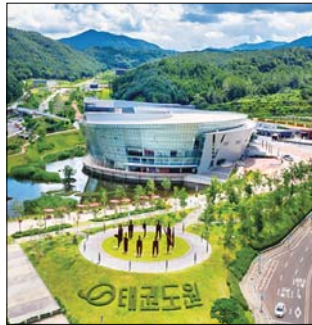
있어 국가사업 공모 대응 및 관련 기업 유치에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관영 도지사는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등 타 지역 현장을 둘러보며, 그린바이오 산업의 산업연인프라 연계에 대한 아이디어 교류에 힘썼다.

김관영 도지사는 "그린바이오는 지속가능한 산업 중 하나로 우리 전북의 강점을 살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다"는 포부와 함께 "전

라북도가 선포한 농생명산업 수도 6대 전략 중 하나인 스마트 그린바이오산업 허브를 구축해 나가면 대한민국의 농생명 기업과 농업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6일 발표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에서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 6대 분야 산업 거점(가칭, 그린바이오 허브)을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기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디지털 마이스 조성  
공모에 태권도원 선정  
대형 하이브리드 회의실  
조성비로 국비 1억도 확보

무주 태권도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3년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서 LED스크린과 음향장비 포함 대형 하이브리드 회의실 조성비로 국비 1억도 확보했다.

이로써 태권도 중주국 대한민국의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은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태권도 무주의 위상 강화와 함께 인적네트워크 교류의 장이 마련되면서 태권도 중주국 역할 수행도 원만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무주 태권도원은 군산의 새만금 컨벤션센터와 함께 전북도의 대표적인 마이스 공간으로 2022년 180여건에 이르는 행사유치 실적에 정부의 디지털 마이스 공간 사업 공모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태권도원은 오프라인 마이스 뿐 아니라 온라인 국제 마이스 행사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무주군과 태권도원은 태권도원 도약센터 1층 내래홀(400명 수용 가능)을 디지털 마이스 공간으로 활용해 717㎡ 규모에 국제회의와 포럼 웹 세미나 시설을 갖춘 온라인 국제회의 또는 지역 내 디지털 마이스 행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도가 2023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2023 전라북도 스포츠 태권도 국제 융합컨퍼런스 2023 개도국 태권도 초청연수,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심판 및 지도자 합동 컨퍼런스를 전라북도에 유치할 계획으로 국내외 태권도인들의 잇따른 방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4·5 재선거 총투표소 79곳 확정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 효자4동 등 3곳  
군산시의원 재선거, 미성동 등 총 3곳 변경

오는 4월 5일 실시하는 재선거와 관련, 전북지역에서 사전투표소 14곳, 투표소 65곳 등 총 79곳이 확정됐다.

27일 전라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 제8회 지방선거(사전) 투표소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군무·영업, 접근성 개선 등의 사유로 부득이 투표소가 변경된 경우 종전 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변경된 위치를 안내한다.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소 변경 1곳(효자4동), 선거일 투표소 변경 총 3곳(삼천2동4투, 효

재2동투, 효자4동1투)이다. 나선거구 군산시의원 재선거는 사전투표소 변경 1곳(미성동), 선거일 투표소 변경 총 3곳(미성동투, 미성

동2투, 미성동4투) 등이다.

유권자는 오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하는 재선거 사전투표소는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4월 5일 선거일에 투표할 경우에는 각 가정에 도착한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akr)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

용해 자신의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며,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면 더욱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 11만1,913부를 각 가정에 발송"했으며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반드시 정해진 투표소를 확인한 후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취재반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